

주일 예배 순서

- 사순절 제1주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편 31:23-24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14장(새 26장) 다함께

교독문(Responsive Reading) 124번(스크린참조) 다함께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어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사오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서는 칭찬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상 가운데 자아를 부인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적은 일부터 철저히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자기 사랑이라는 덫에 걸리지 않도록 십자가를 밝히 보여 주옵소서. 늘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지극히 적은 자, 소외당하고 외로운 자, 장래의 소망이 없어 낙심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가 섬기는 곳에는 주님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성경봉독(Scripture) 고린도전서 9:18-23 인도자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자기부인(2) -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

봉 헌(offering) 361장(새 327장) 다함께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Hymn) 504장(새 451장) 다함께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3. 다음 주 친교 후 소망 속회로 모입니다.
4. 교우소식
 - 장석순할머니께서 퇴원 후 요양원에 계십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기도제목>

-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며 생명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거룩한 백성공동체가 되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조동천선교사님, 이성구목사님, 장석순할머니)

◆ 이 달의 속회 적용점

[믿음속] 야고보서 4:11-12

성경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은 스스로 유일한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은 교만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며 교회를 해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아는 겸손과 사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 그런 마음이 드는 자신 안에 똑같은 허물이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부터 고치고 변화되는 경건의 훈련을 합시다.

[소망속] 고린도후서 7:1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닌 우리의 혼과 육을 아우르는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구원은 반드시 왜곡된 신앙의 형태를 띠게 될 것입니다. 겉은 신자이지만 속사람(영)이 변화되지 않으면 생각(혼)이나 가치관이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종교인이면서도 신앙인 인양 행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활 속에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하며 삽시다.

〈말씀묵상〉 고린도전서 9:18-23

18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19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1. 사도바울은 자신의 상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18절) 나의 상은 무엇입니까?
2. 바울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였다고 말합니까?(19-23절)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모든 일을 무엇을 위해 하고 있습니까?

❖ 인간이 자유가 없을 때 고통스러운 것은, 그에 따른 권리를 박탈당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조차 누릴 수 없을 때 느끼는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유가 있는 인간은 생각처럼 그 자유를 가치 있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유를 악용하고 오용하는데 발이 빠릅니다. 나의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피 흘려 얻어낸 자유로 다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인들이 우리가 사는 현실 세상에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그것은 왕의 권세와도 같은 것입니다. 심지어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사람을 해할 수도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자유란 단순히 권리를 뛰어넘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위험천만한 자유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에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재시고 왕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랑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만물 가운데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인간이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섬길 때 주님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도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이제는 율법 조문에 얽매인 신앙이 아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주를 위해 드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무엇에도 눌리거나 사로잡히지 않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참 자유와 평안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자유로 포기한 권리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권리포기라는 단계로 이어지게 되고 그 결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내 자유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 사택 (330)388-2814

E-mail : hanmadang@gmail.com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